‘세계유산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 개막

27일 익산 백제왕궁서 개막… ‘백제세계유산의 가치를 탐(探)하다’ 주제
내달 17일까지 백제가 선사하는 ‘9가지 선물’ 콘셉트로 프로그램 마련

익산 백제왕궁(왕궁리유적)에서 ‘2024 세계유산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성대한 막이 오른다.

익산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익산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2024 세계유산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가 개최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세계유산축전’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자 기획됐다. ‘세계유산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 행사는 ‘세계유산축전’ 사업의 하나로 익산시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백제세계유산의 가치를 탐(探)하다’라는 주제로 익산(9월 27일~10월 3일), 공주(10월 4일~10일), 부여(10월 11일~17일)에서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축전 기간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9주년을 맞아 백제가 선사하는 ‘9가지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각 지역의 축전이 시작되는 첫날에는 지역별 선포식이 펼쳐진다. 오는 27일 익산 백제왕궁(왕궁이 유적)에서 열리는 ‘가치탐미의 날’은 이번 축전의 첫날을 장식하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산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주제공연 ‘익산 로맨스(Iksan Romance) 무왕의 꽃’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백제 30대 무왕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이어서 남성 4중창 크로스오버 보컬그룹 ‘포르테나’가 축하 공연을 선보여 더욱 풍성한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28~29일에는 강연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렉쳐콘서트’가 진행된다. 28일에는 고고학자 ‘곽민수’와 퓨전국악팀 ‘소리맵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9일에는 유튜버 ‘궤도’와 팝페라 가수 ‘아리현’이 강사와 공연자로 나선다.

‘9가지 선물’ 프로그램은 △여행 상품 ‘축전 시간여행’ △9가지 기념품 중 1가지가 담겨있는 ‘탐9랜덤박스 △ ‘백제인 MBTI’ 등이 있다.

‘백제마블’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보드게임 형식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전국각지에서 예선전이 치러지며 세계유산축전 기간 총 3회의 본선이 이뤄진다.

이 외에도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진 ‘백제 주제전시관’, 익산·공주·부여의 식재료를 활용해 전문가가 현장에서 백제 도시락을 만드는 ‘무왕의 도시락’ 등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다채로운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baekjeworldheritag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15회 2024 익산여성영화제’ 팡파르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서 10편 영화 무료 상영

익산시는 ‘2024 익산여성영화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열린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익산여성영화제’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농촌이민여성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익산YWCA, 전북인아이쿱, 평화바람, 한국문해교육협회 익산지부가 주관·주최한다.

영화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다: 차이의 즐거움을 향해’를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는 안부를 묻는 것이 차별과 단절 극복하는 시작점이 되고, 서로의 차이점이 또 다른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되는 의미를 담았다.

영화제에서는 영화 10편을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관람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감독, 출연자와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영화제 첫날인 25일은 소녀들의 사랑과 친구들의 우정을 다룬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로 시작한다. 이어 가족을 통해 지금 시대의 애국과 민주주의를 묻는 이야기 ‘애국소녀’, 천하장사가 되기 위한 여자 씨름 선수들의 고군분투 이야기 ‘모래바람’이 차례로 상영된다.

26일 상영 작품은 △딸과 딸의 동성연인과 살게 된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딸에 대하여’ △사회초년생의 직장생활을 다룬 ‘더 납작 엎드릴게요’ △영등포 방직공장 여공들과 영등포를 담아낸 장편 다큐멘터리 ‘여공의 밤’이다.

27일은 국내 1세대 조경가 정영선의 사계절 이야기를 담은 작품 ‘땅에 쓰는 시’를 비롯해 익산여성감독 부문 영화 상영이 진행된다. 익산의 여성시민들이 제작한 단편작 △너의 번호는 △햇살과 미소로 가득한 행복 △내 친구 장금이를 만나볼 수 있다.

익산여성영화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063-833-0676)로 문의하거나 누리집(www.ismedi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27~28일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열린다

월명종합경기장 일원서… 공연·경연·체험·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군산시민이 하나 되는 ‘제62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본래 군산시민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올해에는 주말인 28일을 포함해 2일간 ‘선물 같은 날, 선물 같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를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참여 행사를 마련했다.

이는 군산시가 2022년 제60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평일이 아닌 주말에 개최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달라는 시민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나온 결과다.

먼저 첫날 27일에는 팝페라와 대형 붓글씨 개회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의장(3명)과 모범시민상(27명)에 대한 시상과 청소년 합창단의 ‘시민의 노래’ 제창을 끝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이어서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읍면동 명랑운동회’와 ‘내가 바로 춤 신가왕-씽씽 (Sing Sing)경연대회’가 시작된다.

명랑운동회에서는 읍면동 대표 선수가 공정한 경기를 위한 선서 낭독을 하고 종목별 경기(신발양궁, 협동 제기차기, 미션 홀라후프, 바구니 탑 쌓기)가 진행된다.

운동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인기가수 구희아를 비롯해 어린이 트로트·댄스팀 등 다양한 축하공연들이 선보여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어지는 씽씽(Sing Sing) 경연대회에서는 총 8팀(△노래 부문 - 대야면, 경암동, 수송동, 소룡동 △댄스 부문 - 서수면, 옥서면, 신풍동, 미성동)이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낸다.

특히 끼와 재능이 넘치는 월명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월명밴드’와 옥서지역아동센터 아이들로 구성된 ‘옥봉리크르’의 공연이 주목된다.

모든 경연이 끝나면 명랑운동회(최종 1위와 2위 각 1팀, 3위 2팀, 응원상 2팀, 최연소참가팀 1팀, 최고령참가팀 1팀), 씽씽 경연대회(부문별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 인기상 1팀) 수상자를 발표·시상한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관계기관·기업체에서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기부한 풍성한 경품(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교환권, 밥솥 등)들이 흥겨운 잔치의 대미를 장식한다. 경품은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물한다.

시민의 날과 함께 진행되는 O.M.G.(Oh My Gunsan) 페스티벌도 주목할 행사이다. △읍면동 사진 무대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물총놀이, 슬라임, 그림그리기, 버블·풍선놀이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홍보·판매부스(41동)가 운영된다.

부대행사도 있다. 게이트볼장~직3문 방향에서 운영되는 ‘미션타파! 달란트 투어’도 꼭 참가해야 할 행사이다.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에서는 ‘2024 군산희망복지박람회’까지 함께 개최되므로 가을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에게는 여러모로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제7회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개최

27~28일 군산우체국 일원서 ‘행운’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제7회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군산우체국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행운’을 주제로 진행되며 △가족과 연인, 남녀노소 누구나가 손편지의 매력을 느끼며 마음을 전달하는 손편지 쓰기 △지금으로부터 1년 후 받게 되는 느린 엽서 쓰기 △나만의 우표 만들기 △우체통 그리기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축제를 주관하는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회장 배학서) 역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축제 준비부터 운영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하나은행-익산시, 구도심 복합문화공간 조성

올해 완공 목표… 익산 구도심 활성화 기대

익산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多e로움)의 카드를 5년째 발행하고 있는 ㈜하나은행이 익산시와 구도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일 ㈜하나은행, ㈜글로우서울과 함께 옛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중앙로5길 27)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복합 문화공간은 기차역을 테마로 1층은 베이커리 카페, 2층은 식음공간, 3층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조성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을 시작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국내 공간 브랜드 전문 기업인 ㈜글로우서울이 담당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3~27일 화랑훈련 실시

군산시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화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평시 국지도발을 대비하여 통합방위절차 숙달과 도민의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제2작전 사령사 휘하 35사단 주관으로 시를 포함한 민·군·경·소방이 참여한다.

23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직후 군산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시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군·경·소방과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작전 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사태 초기 적을 격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은 민간인 복장의 거동수상자나 정글모를 쓴 가상 적군을 발견하면 군부대나 경찰서, 시(읍면동) 상황실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국번 없이 1338번이나 112번도 가능하다. 군산시는 주민신고망을 가동하여 빈틈없는 지역 안보 지키기에 참여한다.

또한 시내 곳곳에서 훈련을 위하여 불시에 교통통제, 불심검문, 군 차량과 병력의 이동, 실제 훈련 중 공포탄 사용 등 국지도발 상황과 대응에 시민의 양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요금 등 100% 감면

익산시가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대한 9월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등을 100% 전액 감면했다.

지난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지원 조치로 대상자는 총 3,216세대이며 감면액은 약 1억 2,743만 원에 달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2,949가구는 약 1억 1,943만 원을 감면받는다. 공동주택 90개소에 거주하는 267가구의 수도요금 총 800여만 원은 9월분 아파트 관리비에서 감면되도록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